

제31호 【루계 제2605호】

주체 1 0 9 (2020)년 8월

토요일 음력 6월 1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

뜻깊은 《백두산》기념권 총수여식이 7월 26일 오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 들에게 《백두산》기념권총 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수여식장에 나오시였다.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축원의 경례를 드리였다.

무쌍한 지략과 세련된 령군술로 혁명적 당군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시는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여식에서 유일사상과 투철한 혁명정신이 꽉 들어찬 권총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주체의 군사 군종 및 군단급단위 지휘관들, 조선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민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 이는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을 비롯한 각급 새세대 군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성의 맹세를 합창하였다. 무력기관의 주요지휘관들, 조선로동당 믿음과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충실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국가를 위한 열렬하고 진실한 충성심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징표로 자신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지닌 참다운 총대혁명가로, 우리 당의 존함이 새겨진 뜻깊은 《백두산》기념

- 수여식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로동 사상과 군사리론, 군사전법에 정통한 《백두산》기념권총을 받아안는 무상의 바쳐 싸워나갈 심장의 결의를 열광적 박정천 조선인민군 차수와 조선인민군 계급이 새로 개발생산한 《백두산》권총을 유능한 군사활동가들로 철저히 준비할데 영광을 지닌 군지휘관들은 준엄한 으로 터쳐올리면서 당의 믿음과 기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무력의 될 혁명의 무기를 가슴마다에 얹고 최강군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철저한 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주요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김정은원수님과 당중앙위원회에 다지는 림전태세에서 조선로동당의 대업을

> 군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무력의 위하여 당을 따라 멀고 험난한 혁명의 안겨주신 혁명의 무기를 틀어쥐고

불바다를 헤쳐온 투사들 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여하신 권총을 신념과 의지의 기둥으로 삼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억척같이 지켜섰던 선군 시대 군지휘성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산》기념 권총을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심장에 품어 안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보위, 조국보위, 인민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을 당기를 우러러 엄숙히 맹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

항일대전과 반미대전의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 이 새겨진 《백두산》기념권총을 높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수여해주신 추켜들고 김정은원수님을 위하여 한목숨 결전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순간도 잊지 않고 전군을 최정예화. 굳건히 받들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본사기자

#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잦으시였다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하시였다.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 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조선 로동 당 위원 장 이 시 며 조선 조국 해방전쟁 승리 67돐에 즈음 하여 인민군 차수와 군지휘관들이 동행하였다. 초석을 닦은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값비싼 희생 포화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정천 조선 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마련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불멸의

면서 렬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은 사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_ 주의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되리

본사기자

# 제 6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승리 67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속에 제6차 전국로병 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의 4.25문화 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 선 로 동 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 원 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

대회에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을 지니고 조국수호

발휘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 참가하였다.

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 하였다.

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존엄,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경의를 표하시였다.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올렸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였으며 전쟁로병들이 새세대들에게 기둥이시였다고 하면서 열백번 쓰러 은정에 의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전승사에 불멸의 공헌을 한 참된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신념의 피줄기 진다고 해도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 참가한 로병동지들에게 온 나라 전체 령도밑에 창조되고 줄기차게 이어 애국자들인 전쟁로병들에게 뜨거운 로 굳건히 이어주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고마운 내 나라를 절대로 빼앗길수 청년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마음을 다 져온 승리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답례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 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과 전체 조국해방 장내를 진감하였다. 도당위원장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 전쟁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지원군 렬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에게당부하는토론을하였다. 열화같은 휴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새 조선의 영명한 수령이신 하여 조선인민군 군관 지영민이 결의 축하를 보내시며 뜨거운 인사를 세우고 고귀한 투쟁정신을 창조한 전승 김일성장군님은 곧 조국이시였으며 토론을 하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세대의 영웅적삶을 값높이 평가하시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의 신념의 표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값높은 평가와 존경, 숭고한 동지적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싸워 승리의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랑과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넘치는 7.27을 안아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은 대회 였다.

강사인 공화국영웅 김승운이 새세대들 이긴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 대한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오직 하나의 경례를 드리였다.

궁지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동지들이 자기들의 가슴속에 참된

을 표명하였다.

력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자주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그토록 마음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으로 값높이 쓰시는 우리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내세워주시며 온갖 은정을 다 돌려 모시며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혁명 로,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유명무명의 혁명렬사들과 우리 인민의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보위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우며 참된 삶을 빛내여주는 조선로동당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쟁로병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만을 믿고, 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전체 받들고, 따라가줄것을 새세대들에게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의로 세차게 끓어 대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당부하면서 그러면 우리 나라는 꼭 번지였다.

그는 전화의 나날 해방의 은인이시며 대학 학생 조춘혁, 인민군군인들을 대표 모든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억천만번 합쳐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우리 로병들은 후손들에게 조국수호 영예롭게 지켜내고 불굴의 조국수호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 정신을 유산으로 넘겨주게 된것을 정신을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준 로병 하였다.

군인의 본보기로 뚜렷이 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쟁로병동지들의 절절한 당부는 새세대 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전승시대의 정신과 넋을 그대로 이어받아 당과 혁명,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치는 청년영웅이 되며 그 어떤 천지풍파속 에서도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 일편단심 변함없을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수 령 결 사 옹 위 에 줄기차게 이어지는 전승의 력사가 있고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인 확신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 전체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 그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하며 당정책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갈

대회장은 전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세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청사에 이어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국의 보내시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그나큰 제 6 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령도따라 대를 이어 빛내이며 사회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나갈 공화국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본사기자

#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것이다

##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1 0 9 ( 2 0 2 0 ) 년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오늘은 7.27입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력사 속에 뚜렷이 새겨진 위대한 전승, 이 《전승》이라는 말을 외워보며 누구나 가슴벅찬 긍지를 안고 맞이하는 승리의 7.27입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의 명절에 즈음하여 그 위대한 력사를 만들어내신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을 이 대회장에 다시 모시게 된 기쁨 무슨 말로 다 표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들인 로병동지 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일곱돐에 즈음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신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렬사 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 주며 전투적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 인민지원군 렬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승세대가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발휘한 위대한 정신과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이 오늘의 우리 조국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자랑 스러운 전승세대인 동지들을 언제나 보고싶고 동지 들의 영웅적인 삶을 긍지높이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것이 우리 당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대회는 전쟁로병동지들의 공적을 후세에 더욱 뚜렷이 전하고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이어 선렬들의 숭고한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0년대에 전승세대가 세운 특출한 위훈과 후대들에게 남긴 정신적재부와 유산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것으로 깊이 간직되고있습니다. 현대 력사에서 우리의 7.27이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미는 결코 한 나라와 민족이 침략자들과의 싸움 전우들과 벗들을 앗아가고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인류전쟁사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유의 기질로 공고화되게 되였습니다. 준엄한 조국방위전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후 랭전 의 시작과 함께 벌어진 자주력량과 지배세력, 사회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백두 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최초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 치렬성과 대결의 심각성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킨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 것이였습니다. 적아간에 인구와 령토는 물론 무장 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장비와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비조차 할수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킨 인민군전사들과 전쟁 없었던 이 전쟁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승리에 모든것을 다 바친 후방의 인민들에 의하여 공세를 막아내고 우리의 령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 정신, 맨손으로도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지난날 약소국, 약소민족으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 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의 와 인민을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영웅의 나라, 불길을 헤쳐온 전승세대를 우리 혁명전통계승의 영웅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내세우고 지구 초석을 마련한 자랑스러운 세대로 높이 내세우며 상에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의 세찬 떠받들고있는것입니다. 폭풍을 안아오게 한 전환적계기로 되였습니다.

구도를 변화시키고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인생관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힘차게 추동한 여기에 7.27이 가지 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숭고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의 승리였고 자신들이 도맡아 겪으면서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였으며 다 바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들이며 그 무엇에도 력사의 퇴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인류의 미래인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들입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는 그자체에만 딛고 일떠선 전승세대의 전설적인 위훈과 더불어 위대한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이 창조되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과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 견인불발성은 우리 인민의

우리의 전승세대는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한 수령중심의 단결의 정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백절불굴의 투쟁 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였습니다. 7.27은 혁명정신이 영웅조선의 기상으로 높이 떨쳐지게

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우리의 위대한 7.27이 없었다면 현 세계에서 가장 존엄 전승세대는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있고 자주적인 강국, 인민의 나라로 영광떨치는 \_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_ 사회주의조선의 오늘도 없었을것이며 아시아와 들이며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전세계를 저들의 지배권에 두려는 제국주의의 오만 위대한 스승입니다. 전승세대가 모든 분야에서 주력 한 시도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전후 사회 으로 활약했던 시대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새 력사를 방향짓게 가장 눈부신 전진과 비약이 이룩되였으며 전쟁영웅 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는 들의 위훈담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평화시기에 긍지높은 전통과 재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의 정치 나서자란 모든 세대의 자양분으로, 혁명적삶과

참으로 우리의 전쟁로병동지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고생은 동지들과 같은 고결한 후대관, 혁명관을 지닌 혁명 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바로 알게 하고 선배들을 모시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영예로 영원히 잊지 않게 한 조국해방전쟁은 이 땅의 여기고있으며 전승세대들을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년대에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과 사회주의 기둥이 되여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부모와 형제자매들, 귀중한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전후 근 70년간의 력사는 결코 평화시기라고 할수 없는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의 련속이였으며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맞받아나아가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의지로 우리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력강화의 헌신할줄 아는 열혈의 충신, 견실한 혁명가로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였으며 저마다 눈앞의 《번영》만을 추구할 때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 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계승되도록 할것입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역경을 뚫고 온갖 되게 할것입니다.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 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제국주의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변했습니다.

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될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해마다 맞이하는 7.27이지만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수도 없고 인정하지 : 군대를 무릎꿇게 하고 혹독한 년대와 모진 세월도 않을수 없는 전략적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 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것입니다.

동지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것이 변하였지만 전화의 렬사들, 로병동지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새로운 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건설에 한몸바친 잊을수 없는 렬사들의 모습을 다

그러보고있으며 그들앞에 떳떳할수 있게 더욱 분투 할 각오를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전쟁로병동지 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한것처럼 오늘의 새세대들은 동지 들의 넋을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전승의 력사는 위대한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이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는 철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금문자로 새겨주어 누구나 역경속에서 도 굴함없는 강의한 투사로, 새로운 기적과 승리 의 주인공들로 먼저 간 렬사들앞에, 로병동지들앞 에 한생을 부끄럼없이 살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락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되여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것입니다.

동지들!

전화의 용사들이 결전의 수많은 낮과 밤들에 그리도 소중히 그려본것은 삼천리강토우에 펼쳐질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이였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렬들이 바라던 강국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 하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용기백배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전승세대의 삶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조국번영의 한길에서 승리자로 한생을 빛내여야 합니다.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 에서 자랑찬 승전고를 힘차게 울려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조국해방전쟁참전자 들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용맹한 전투적기질과 숭고한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우리 식 전법에 정통한 일당백의 만능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승의 력사는 리수복, 조군실, 강호영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의 위훈을 청년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후세에 전하고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을 죽음을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일각 가증되였습니다.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들 우리는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처럼 당과 조국을 먼저 알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키우겠습니다.

> 하여 로병동지들이 피흘려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라는 우리의 위대한 전통이 대를 이어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같으면 백번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앞으로도 로당익장하여 다해 모실것이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 근로단체조직들과 전쟁은 넘볼수 있는 상대와만 할수 있는 무력 전체 인민이 로병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뜻이 정성다해 모시는것을 숭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 하고 온갖 성의를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 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불멸의 위훈은 영원히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우리 후대들의 심장에 뛰는 붉은 피를 더욱 진하게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것이며 해줄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혁명의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세계《최강》을 자처하는 미제와 그 추종무리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로병동지들인데도 세월 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였고 여기에 계시는분들마저도 머리우 에 흰서리가 내려앉는것을 피하지 못하시는것을 보니

로병동지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는 존경하는 전국의 로병동지들이 오래오래 지금 우리는 로병동지들의 얼굴에서 그 준엄한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마음의

위대한 전승 7.27 만세!

지난 7월 27일 21시, 뜻깊 은 전승절을 맞이한 평양의 밤하늘가에 축포, 경축의 축 포가 터져올랐다. 지심을 뒤 흔드는 장쾌한 뢰성, 밤하늘 치달아올라 꽃보라인양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는 축포 탄들, 온 누리를 물들이는 오색찬연한 불꽃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게 드리는 경의를 담아 축 포의 불줄기들이 창공에 아 름다운 오각별모형을 펼치자 군중이 터치는 격정의 환호 성이 밤하늘가로 메아리쳤다.

눈부시게 솟구쳐올라 천갈 래마갈래 불부라를 날리는 축포를 바라보며 리남호 평 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은 《정 말 멋있다. 저 환희의 축포 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 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전승세대들에 게 드리는 위훈의 금별메달 이고 아름다운 꽃다발이 아 니겠는가.》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축포 가 발명되어나온 때로부터 축포발사는 많은 나라들에 서 국가적명절이나 민족적명 절을 경축하는 행사로 진행 되여왔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강도적 인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 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영웅조선의 승리자의 궁 지를 안고 터져오르는 축포 를 바라보는 이 나라 인민의 격정과 환희는 참으로 남다르 다고 해야 할것이다.

7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르 는 눈부신 축포의 천만불꽃 들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 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 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들 의 불굴의 투쟁과 빛나는 위 훈이 어리여있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의 조 국해방전쟁은 창건된지 2년 도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있어서 너무도 힘겨운 전쟁 이였다.

적들은 크지 않은 이 땅

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 장비들을 투입하였으며 가 장 야만적인 살인방법과 파 괴수법들을 적용하였다. 침 략전쟁들에서 악명을 펼치 고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졌 다고 자처하는 살인장군들 과 책략가들도 수많이 동워 되였다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 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쟁에 서 신생조선이 이기다는것은 외부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것이였다.

허나 적들은 크게 오산

하였다 침략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 인민을 잘못 보고 덖벼들 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신 공화국은 처음부터 이 긴 전쟁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 하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 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드 는 적들에게 거듭되는 참패 를 안긴 결정적요인이였다.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 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전 전선에서의 련속 타격과 포위섬멸전, 비행기사 냥군조운동과 땅크사냥군조 운동을 비롯한 주체전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침략자들에게 쓰디쓴 패배를 안기였다.

피끓는 가슴으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막아 돌격로를 열고 한몪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인민군용사들의 투쟁위 훈은 오늘도 만사람을 격동 시키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군사적기적들이 무수 히 창조되였다. 4척의 어뢰정

으로 적중순양함을 수장시키 고 4문의 포로 5만대군의 상 륙을 3일간이나 막아냈으며 재래식비행기로 분사식비행기 를 쏘아뗠군 인민군용사들의 불사신의 기상은 적들을 전 률시켰다.

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는 제일 강한 힘은 믿음과 사랑 이 발휘하는 힘이다. 자기의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불타는 사랑은 그것을 빼앗 으러는 원쑤들에 대한 치솟 는 증오를 낳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자 기의것에 대한 믿음은 곧 자 기 위업, 수령이 령도하는 위 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였다.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전쟁에 서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 변의 신념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김일성장군님을 찾 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쟁 에서 이긴다고 한 법동농민 의 소박한 말에도 어리여있었 고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 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한 락원의 평범한 녀성당원 의 대답에도 깃들어있었다.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를

뼈저리게 겪어보고 해방후 공장과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여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누려온 인민에게 있 어서 참다운 존엄을 안겨준 공화국정권과 정다운 고향산 천, 자기 손으로 마련한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은 목숨보 다 더 귀중하였다. 이 모든것 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원 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거 대한 힘으로 분출되였다.

보

후방인민들은 적들의 맹 폭격속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시수송을 중단하지 않았 으며 적강점지역들에서 나어 린 학생소년들까지 원쑤들 과의 싸움에 용약 펼쳐나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

참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 의 군사적공세를 막아내고 자기의 령토와 자주권을 피 로써 사수해낸것은 우리 민 족사와 세계전쟁사에 전무후 무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였다.

어찌 그뿐이라. 지난날 약 소국으로 빚을 잃었던 조선 을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 는 영웅의 나라로 력사무대 에 당당히 내세우고 지구상 에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의 세찬 폭풍 을 안아오게 한 전환적계기 로 되였다.

바로 그래서 전화의 용사 들을 위해 뿌리는 꽃보라인 양 눈부시게 황홀한 축포를 바라보며 누구나 그렇듯 커 다란 긍지와 환희에 잠겨있 은것 아니라.

밤하늘가를 물들이는 축포 의 불꽃을 바라보며 사람들 은 전화의 나날로부터 철의 흐름마냥 도도하게 굽이쳐흐 른 영웅조선의 승리의 년대 들을 다시금 긍지높이 안아 보았다.

천리마의 억센 나래를 펼 치고 사회주의번영의 대로 를 힘차게 열어놓은 1960년 대와 1970년대, 1980년대,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 국의 려명을 불러온 1990년대 와 2000년대…

제국주의런합세력의 강도 적인 침공을 물리친 전승신 화창조의 주인공들이 전후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천리 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들이였고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 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들 이였다.

전쟁의 불구름과 전후 겹 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세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승리만을 떨쳐온 위대한 년대들로 아 로새겨져있기에 공화국의 력 사는 령롱한 축포의 불꽃마 냥 그렇듯 빛을 뿌리고있는

전후 근 70년간의 력사는 결코 평화시기라고 할수 없 는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의 련속이였다.

그 나날 공화국은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의지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 력강화의 어려운 길을 스스 로 택하였으며 이제는 적대세 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 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스스로를 믿음직하 게 지킬수 있게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뜻깊 은 연설에서 이제는 그 누 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고 하시면서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 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라

20세기초에 힘이 약해 대 국들의 싸움마당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국권을 송두리채 강탈당하였던 조선이였다. 제 국주의강도배들이 해방후 청 소한 공화국을 요띾기에 압살 하려고 침략전쟁의 불문치를 들고 달려들었던 조선이였다.

얼마나 가슴후련한 말씀

고 말씀하시였다.

이신가

그 조선이 오늘은 그 어 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부실 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의 힘 을 가지고있고 세상이 무시 할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전략적지위에 올라섰으 니 이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끄뗙없고 계속 승리만을 뗠 쳐갈것이다.

그래서 전승절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가 더욱더 환희롭 고 그처럼 눈부신것 아니던가.

오 세상이 우러르는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 이 모시여 조선의 영광은 끝 없고 승리의 축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장쾌하게 터져 오르리라는것을 전승절의 황 홀한 축포를 바라보며 사람 들은 굳게 확신하였다.

영원한 승리의 7.27.

영원한 승리의 축포. 공화국은 오직 승리 승리 의 한길을 따라 노도쳐 전진 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에 완성하였으며 그후 비 매혹과 흠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그이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는 김정은원수님은 참으로 다재 수없이 많다. 다능한분이시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그이께서는 어느 분야이든 막히는데가 없이 환히 도통

하고계신다. 버섯공장에 가시면 버섯박 사가 되시고, 농장에 가시 면 농학박사가 되시고. 건설 장에 가시면 전문건축가들도 놀라게 하시고.

최근년간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일떠선 현 대적이며 문명한 대기념비적창 조물들과 살림집들이며 체육 엇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문화후생시설들을 보아도 모 두 그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에 이 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어리여 있지 않은것이 없다.

언제인가 개건된 백두산건 축연구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BIM으로 설계한 축구런맹청사에 대해 말씀하 시여 전문설계가들을 놀라게 하신 사실과 설계기관들에서 작성하는 각종 대상에 대한 설계안들을 다 보시는것은 를것이라고, 앉아서 사무를 더우기 궁전팡장을 공원화하 물론 그 설계안들이 안고있 는 결함에 대해서도 완전히 파악하고계시여 일군들을 감 동시킨데 대해서는 이미 알 려져있다.

또 언제인가는 릉라물놀이 지적하시여 첫 순간에 설 계의 부족점을 꿰뚫어보신

이렇게 공화국의 가는 곳마 다에 먼 후날에도 손색없을 훌륭한 건축물들이 앞을 다투 어 일떠서고있는것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심한 지도를 주고계시기때문이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 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우리 식의 지하전동 차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 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득 누구에게라 없이 오플라가 무 오플라?!

그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동 행한 일군들은 물론 지하전 동차를 운영하는 일군들도, 새 지하전동차의 제작자들도 처음 듣는 말이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 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있 는 일군들에게 객차에 앉는 의자와 오플라를 배합하여놓 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 을 안고있는 그에게 억제할수 들은 오플라가 무엇인지 모 없는 흥분을 가져다주었다. 보는 사람들이 지하전동차를 였다는 사실은 한생을 원예설 리용할 때 될수록 서서 간다 고, 그런데 지하전동차를 타 고 계속 서서 가면 힘들수 살짝 걸터앉을수 있는 의자 장의 설계초안을 보아주시고 를 놓아주고있다고, 그런 지 부지를 너무 넓게 잡았다고 하전동차 의자가 오플라이라

> 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 플라가 건강에 좋기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하전동차를 만드는데 받아들이도록 하여 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오플라에 대해 그렇게도 상세히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말씀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박식하실

가. 정녕 그이의 지성의 세계 는 얼마나 무한대한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 정원들을 많이 설계하여 명 성이 높은 외국의 한 원예 설계전문가가 금수산태양궁전 을 돌아보고 터친 심장의 웨침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뛰여난분이 신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진보적인류가 열렬히 칭송 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하 나밖에 없는 궁전으로 꾸 렸다는 소식은 일찍부터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정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광장가운데 꾸려진 특색 있기때문에 서있는 상태에서 있는 중심록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발기하시였 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광 장공원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로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 모되고있는것이다. 하였다.

《원예설계에서는 세상에 서 제노라 하던 나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금수산태양 궁전에 와서 스승앞에 선 학생의 심정을 느낍니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원림 형성과 건축조형은 물론 미 학적인 면에서도 천재적인 재 능을 가지고계시는 참으로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이것이 어찌 원예설계가 한 사람만의 경탄이겠는가.

그 누구도 따를수 없이 다 재다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을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모신 공화국인민들모두의 심 정이고 세계의 수많은 인사 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에는 한 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령도적실력과 해박한 식견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것 이다

하다면 그처럼 다재다능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심원한 세계는 어디에 뿌 리를 두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공화국인민들모두를 세상 누 구나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 계가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사색과 헌신에 뿌리 를 두고있다.

특출한 령도적자질과 능력 손길에 이끌려 공화국은 날

본사기자 유금주

####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6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화학공업 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 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 H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 를 제시하시였다. 저

화학공업은 무에서 유 를 창조하는 공업이다. 화 학공업의 발전은 경공업, 농업, 건설, 기계제작 등 여러 부문의 원자재문제를 해결한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 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 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0

AH

包

16

0

0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 시면서 그 인재양성을 위 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전망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부침땅면적이 제한된 조건 에서 나라의 무진장한 석 회석이나 갈을 원료로 하 는 화학섬유공업을 발전 시켜 섬유문제를 해결하도 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 한 령도와 세심한 관심속 에 공화국에서는 가렬처 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 날에도 비날론공업화연구

날로생산기지가 건설되게 되였다. 2.8비날론공장 (당시)은 점차 생산설비 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은 더욱 높아지 게 되였다. 주체적인 화학공업의 발

전으로 공화국에서는 비날 론, 니트론, 나이론, 스 프를 비롯한 옷감들이 생 산되고 염화비닐을 비롯 한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 들이 개발되여 인민생활향 상에 이바지하였으며 화 학비료와 농약이 생산되 여 농업생산에 기여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 대적으로 꾸리도록 하시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와 깊은 관심속에 기업소의 현대화가 추진되여 질좋은 비날론솜과 화학제품생산 이 늘어나게 되였다.

주체99(2010)년 2월 현 대적으로 꾸려진 기업소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비날 론공장이 새롭게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것은 대경사 라고 하시면서 이 기업소 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 는 공장이므로 그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 기에도 함남땅을 찾으시 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 서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

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지는 갈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1계렬 공정건설을 끝내고 시운 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 였다고. 비날론섞유와 화 학비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발전한 화학공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 여 오늘 경제건설에서 금 속공업과 함께 쌍기둥 을 이루고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인민 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 와 합성수지, 각종 기초화 학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 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화학공업이 나아 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 시였다.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 취하여주시였다. 하시며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실 때에도, 평양제 약공장을 찾으시여 생산 실태를 료해하시면서도, 어느 한 화학섬유공장에 서 종이의 질을 가늠해보 실 때에도 그이의 심중에 는 화학공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인민경제의 주체 화, 현대화를 다그치시려 는 생각이 늘 자리잡고있

기관을 찾으시여서는 개건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제기

었다.

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 두 풀어주겠다고. 걸린 문 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 화학공업발전을 위해 마음써오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속에 몇개 나라의 독 점물로만 되여있는 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 는 성과들도 이룩되게 되

였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 설하는것은 공화국의 화 학공업에서 원료의 국산 화를 실현하고 주체성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다방 면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 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학공업부문에서 석탄가 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 학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 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 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들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그이의 심혈과 헌신 의 자욱은 남흥청년화학 련합기업소며 순천린비료공 장에도, 서해의 신도며 신 의주의 화학섬유기지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나 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경제력과 인 민생활을 높이도록 하시려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화학재료를 연구하는 한 에 의해 공화국의 화학공 업은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분석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

역에서의 군사적패권유지에

남조선을 돌격대로 써먹으려

는 미국의 속심과 관련된다

그것은 오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하와이주변해상에

서 벌어지는 미국주도의 다

태평양합동군사연습(《림팩》)

에 남조선군을 참가시키기로

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연습에 남조선군은 이

지스구축함을 비롯한 2척의

함선과 2대의 해상작전직승

된 해군전대를 파견하기로 하

남조선이 미국의 아시아태

평양전략실현에 깊숙이 발을

들이미는것은 가뜩이나 첨예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것은 물론 남

조선자체의 안전에도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더우기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대류행전염병확

산으로 아우성치고있는 속

에 남조선강점 미군내에서도

악성비루스감염자들이 계속

나타나 남조선사회에 불안

과 공포를 더해주고있는 형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7월 20일까지 루적

비루스감염자가 98명이라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추가공개하지 않고있

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월 23일 남조선증앙방역대

책본부는 미국에서 들어온

미군과 가족 9명이 비루스

감염자로 새로 확진되였다고

편이다.

밝히였다.

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기, 병력 570여명으로 편성

국적련합해상군사훈련인

고 평하고있다.

였다고 한다.

#### 반미자주 화의 라오르는

남조선에서 8.15를 앞두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배격하고 당국의 대미굴종정 책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대 중적인 투쟁이 활발히 벌어 지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5일 6.15남측위원회와 민주로 총을 비롯한 180개의 각계층 운동단체들로 구성된 8.15민 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8.15추 진위원회)는 서울과 대구, 부 산,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 지 역들에서 《한미워킹그룹 해 체! 한미련합군사훈련 중단! 7.25범국민행동의 날》행사 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미군철수》, 《한미실무그룹 해체》, 《미군방위비중액반 대》, 《평화협정체결》을 요 구하는 비상시국대회, 평화현 수막행진, 기자회견, 반미선전 물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벌리 면서 반미기운을 크게 고조시 켰다고 한다.

특히 8.15추진위원회는 수

미국의

내정간섭

LENAMOR ZI

많은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 과 2만 2 400여명의 개별적 인사들이 서명한 비상시국선 언문을 발표하고 민족의 자 주권을 유린하는 미국과 국의 대미굴종정책을 단죄규 탄하는 《시국롱성》을 전 지 역적으로 전개하며 《8.15민 족자주대회》를 개최할것이라 고 하였다.

한편 범민련남측본부, 부산 민중련대, 반미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운동단체들은 서울주 재 미국대사관과 성주, 평택, 청주, 광주, 부산 등에 배치 되여있는 미군기지들을 순회하 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 께 《미국은 탈북자단체들을 비호두둔하는 행위를 그만두 라!》, 《미군세균전부대와 싸

드기지를 추방하라!》, 《미군 의 탄약고부지설치를 반대한 다.》 등의 구호들을 들고 반 미, 반전평화투쟁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8.15를 앞두고 강 력한 반미행동전을 예고한 진 보운동단체들의 투쟁이 조직 적인 성격을 띠면서 한층 격

렬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 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5년이 되여온다.

이 75년이란 세월은 미국 이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 며 온갖 강권과 전횡, 살륙 과 략탈을 일삼아온 범죄의 나날이였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 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을 애당 초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 며 아무 거리낌없이 모욕하 고 마구 죽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나물 뜯는 소녀를 《꿩》이라고 하 면서 쏘아죽인 군산소녀총격 사건과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 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동 두천녀인삭발사건, 윤금이살 해사건, 장갑차로 지나가던

두 녀중학생을 야수적으로 깔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해 감행된 살인만 행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남조선인민들을 한갖 《들

쥐》로, 강탈과 략탈의 대상 으로밖에 보지 않는것이 바 로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이런 오만한 사고방식과 횡

포성이 남조선을 온갖 강권 과 전횡, 살륙과 테로가 살 판치는 암흑천지, 인간생지 옥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천인공노할 만행으 로 남조선에서는 전후시기부 터 2004년까지만 해도 8만 3 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 람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미국 의 남조선강점을 두고 《지 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 는 주종관계, 예속관계, 굴 종관계》라고 한결같이 말하 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이 강요하는 방 위비중액과 첨단전쟁장비구 입강요, 합동군사연습재개 책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이

8월로 예정되여있는

합동군사연습의 규

모를 축소하여 진

행하기로 《잠정합

의》하였다고 한다.

조선언론들속에서

는 《극도로 첨예

해진 조선반도정세

를 통제불능의 최

악의 상태에로 몰

아갈것》이라는 우

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결코 우연한

원래 미군부가

이번 하반기연습

이 쌍방련합군의

전투준비 및 실동

훈련으로서 련합

방위태세를 총체

적으로 점검하는것

으로 되여야 한다

는 립장을 고수해

왔다면 남조선군은

전시작전통제권반

환을 실현하기 위

한 목표를 달성하

는 방향에서 진행

할것을 고집하였다

한마디로 남조선

에 대한 군사적지

배권을 단단히 틀

어쥐려는 상전과

임기내에 허울뿐

인 전시작전통제권

고 한다.

이라도 넘겨받아 《치적》을

쌓으려는 하수인사이에 벌어

진 일종의 강박과 앙탈질인

미국과 남조선이 《8월축

소강행》에 합의한데 대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지

가가 아니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

I

6

동

2

O

셈이다.

이러한것들은 미국만을 위 한것으로서 남조선에는 민생 파탄과 심각한 경제적파국만 을 불러올뿐이다.

오늘 남조선을 한갖 식민지 예속국, 무기판매시장으로 보 는 미국의 극도에 이른 멸시 와 예속화정책은 날이 갈수 록 더해만 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을 부르짖 으며 보수패당과 조금도 다 를바없는 사대적근성과 외세 의존정책에 매여달리는 친미 매국세력들이 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 두리채 섬겨바치는 쓸개빠진 짓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친 미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앞 으로도 줄기차게 계속될것 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내 외 호 전 세 력 들 의 전 쟁 연 습 책 동 을 남 조 선 인 민 들 반 대 하 여 벌 리 는

### 함없

반공화국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군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륙군 3사단의 쌍방훈련, 해 병대의 합동상륙훈련,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의 공격편대 군훈련, 지상 및 공중비상 대기 항공차단훈련을 진행 하였으며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술, 기동, 사

격, 락하, 도하, 반화학, 반테로 등 중단되였던 각 종 단독훈련들을 벌려놓았 다고 한다. 이와 같은 훈련들에 대해

력사의 법칙적인 전통을 무 시하고 또다시 죄악의 력사를 | 라는 명목을 내세우고있지만 쳐날뛰고있다. 그런데 해괴한 《기념행 되풀이하려는것은 스스로 자 그의 침략적성격은 절대로 가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위한 각종 첨단무기개발과 반입책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

한편 《북에 대한 감시와

《COVID-19》사태가 장 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 기화되면서 남조선에서 경제 과 념원에는 아랑굣하지 않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리》로 둔갑시키는 놀음을 벌 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 시각도 남조선군부는 위기와 사회적혼란이 날로 심 고 계속 무분별한 전쟁연습 없다. 리였으니 낯가죽이 두터운자 본사기자 한복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강행 각해지고있는 때에조차도 아 과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 무런 상판도 없는지 전쟁연 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 습불장난과 첨단무기개발에 의 망동은 조선반도에 군사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빨아 적긴장과 정세격화를 몰아올 들인 자금을 거리낌없이 탕 뿐이다.

금 많은 나라들에서 군대가 으로 동원되는데 〈한국군〉 은 심기가 편안해서인지 아니 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호 기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정 말 불안해서 못살겠다.》 등 의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가

것이 아니다. 현실은 겉으로는 《대화》 와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화국과 기어이 군 사적으로 대결하려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의 변하지 않은 동족대결속심을 잘 말해주고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

확산되고있는 미본토는 물론 최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 과의 군사적대결기도를 더욱

이것은 악성전염병이 날로

올해의 《국방예산》이 《력대 최대》라는데 대 《고체연료를 리 용한 우주발사체》로 저 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는데 대해서도 숨

기지 않고있다고 한다. 앞에서는 《대화》 타령 을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 는 공화국과 대결할 목 적으로 군사력증강에 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남 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를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내외여론은 관계가 악화국면에 처하 고 군사적긴장이 조성되 📆 연 보수《정권》때와 무엇

고있는데 대해 큰 우려 상대방의 자제력을 오 를 표시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남조선 당국은 첨단군사장비개 발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높이 상서롭지 못한 행위들에 발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한

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영 진 기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얼굴

해외주둔 미군기지들에서 들 어오는 미군이 남조선의 악성 비루스감염증사태를 더욱 악 화시키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구 실로 또다시 방대한 침략무 력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 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두고 인민들의 생명안전 같은것은 애당초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전쟁미치광이, 반역범죄집단 이라고 하면서 합동군사연습 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별 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얼마전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미국대사관악 에서 비상시국선언기자회견 을 열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 연습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 섰다. 또한 부산민중련대를 비롯한 운동단체들도 남조 선에서 세균무기실험을 감행 한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미군세균전부대추방을 위 한 부산시민원탁회의》를 진 행하고 편집물 및 광고제작 등 다양한 형식의 반미투쟁 을 벌리였다 이와 함께 부 산 해운대지구에서 방역규정 을 란폭하게 위반한 남조선 강점 미군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하여 미군탄약고부 지설치반대투쟁. 부평미군기 지 토양정화비용요구투쟁과 같은 실력행사에도 적극 나 서고있다고 한다.

현실은 범죄적인 합동군사 연습에 매여달릴수록 남조선 각계층의 더 큰 항의와 규탄 만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에 화색을 띠우고 북남관계

개선을 떠들어대온것이 한갖

혀끝의 소리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적라라하게 보

♪ 라 9월평양공동선언, 북

력사적인 판문점선언

남군사분야합의서채택이

후 첨단전쟁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에 계속 매달려온

배신행위만으로도 남조

선당국은 북남관계를 파

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녕 버젓이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있으니 이것이 과

판하면서 경거망동하고있

는 당국을 규탄하는 남

본사기자 최 광 혁

👸 🕻 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

이 다른가.

여준다.

수 없다.

不

리철명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6.25전쟁 70주년 유엔군참 전의 날 기념식》이라는 광대 극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

조선전쟁에 뛰여들었다가 패전 의 쓴맛을 보고 겨우 목숨 을 건진 산송장들을 비롯하 여 어중이떠중이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속에서 남조 선국방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조작 70년을 계기로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에게 《축하서신》을 보내면서 낯 간지러운 소리를 잔뜩 늘어 놓았다고 한다.

이것이 수십년전 북침전쟁 을 도발한 저들의 범죄적정 반공화국적대감을 적극 고취 고있다. 하여 이 땅우에 침략전쟁의

7.27은 공화국에 있어서 세 계를 제패하려고 무분별하게 접어들었던 도발자들을 멸망 의 내리막길에 몰아넣고 나 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 롭게 지켜낸 긍지높은 승리 자의 명절이며 우리 민족사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 까지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변이다.

반대로 공화국을 얕보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력사가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한 체와 수치스러운 참패상을 도발자들에게는 돌이켜보기 7.27이 있다. 망각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조차 끔찍한 수치의 날로 되

참극을 재현해보려는 흉심의 사》를 벌리고 패배를 《승 멸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 리울수 없다.

들이 아닐수 없다 그러다고 해서 력사의 진실이 달라질 수야 있겠는가. 력사의 패배자들이

를 부리며 해마다 이런 광 대극을 반복하는것이야말로 제 낯짝에 흙탕칠하는 못난 와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이들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남조선의 이미 없어졌어야 할 랭전의 유물을 아직 까지 싸고돌며 《평 화》의 보자기로 분 칠하고있는것은 언제

기어이 북침야망을 실현하려 는데 있다.

그러나 6.25 뒤에는 공화 국의 빛나는 승리로 되는

얼마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 체회의》라는데서 2020년 하 반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을 8월 중순에 진행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정찰을 강화한다.》는 미명하 에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무 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반입하였으며 이른바 《북반 항공망을 뚫을수 있는 전자 전기도입》을 다그치는 등 첨 《년례적》이며 《통상적》이 단무기개발과 반입책동에 미 있다.

진하고있는것이다.

은 《비누》로 《보수》의 진

연케 하고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이

계승》과 《3.1독립

운동정신의 계승》

최근 남조선에서 《미래통 는다.》는 문구도 뻐젓이 포함 로운 투쟁을 모독하고 친일 사탕발림의 눈속임수이다. 합당》이 《몸가꾸기》에 여념 시켰다고 한다. 굴종의 추태를 부리고있는 친재벌정책과 반인민적악정 이 없다고 한다. 《혁신》과 삶은 소 웃다 꾸레미터질 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으로 경제를 파국에로 몰아넣

때를 씻어버리겠다고 흉내를 5.18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 들과 함께 파묻어야 제격이 악상은 모두 당반우에 올려놓 내는가 하면 새롭게 장식한 쟁 등은 리승만과 박정희와 라고 주장하던 친일매국노를 고 저들이 마치도 서민을 위 《정강정책》이라는 면사포도 전두화, 로태우와 같은 《미 《영웅》으로 묘사하며 서울 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죽을 뒤집어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래통합당》 조상들의 집권시 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 부리고있으니 얼마나 낯가죽 그 《정강정책》의 면사포에 기 사대매국정치와 파쑈독재 하여야 한다고 목에 퍼대를 두꺼운 《미래통합당》인가.

4.19인민봉기, 부마항쟁, 남조선 각계가 일본전범자 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죄

것이다.

심지어 《동국사략》, 《대 │ 매달아놓은 각종 《장식품》 를 반대하여 싸운 남조선인 돋군것도 얼마전의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변할수 없

는 반역정당임은 이 의적기본질서에 립 일》야망을 그대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우리 민족의 넋을 빼앗으려는 범죄적인 노예교육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 점하고 수십년동안 야만적인 여긴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왕을 숭배해야 한다는 집요 등 지리교과서용도서로서 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 초시기부터 민족교육을 깡그 한 설교를 들어야 했다. 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미쳐 리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 날뛰였다.

의 하나는 《황국신민화》를 립학교령》을 공포하고 민족교 《궁성요배》란 왜왕이 있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 노린 식민지노예교육이다.

여기에는 조선사람들을 영 어들게 되였다.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조선민 조선말과 글대신 일본어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족을 《황국신민화》하기 위 국어로 하여 가르치도록 강 해 류례없이 악독한 식민지 요하였다. 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어진 이 운동은 점차 활기 달하였다. 를 띠였으며 사립학교의 수 이에 따라 일체 교육기관 시하고 박해하였다. 는 수많이 늘어났다.

도 하였다.

였다.

육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는 《궁성》을 향해 절을 한 였다. 《황국신민화》 란 조선사람 결과 1910년에 이르러 조선 다는것이다.

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며 일제는 1911년 조선에서의 의 이른바 《조상신》딱지를 애국명장들의 전기들도 모조 침략정책실현에 최대한 리용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이른 두어두는 《신사》를 전국각 리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하려는 범죄적목적이 깔려있 바 《근본방향》이라고 하는 지에 세워놓고 거기에 참배할 일제는 조선사람들에게 머 《조선교육령》이라는것을 발 것을 강요하였으며 《황국신 리단장과 옷차림도 일본식으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에서 포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에서 민서사》를 무조건 외울것을 로 할것을 강요하였다.

1931년 10월 왜왕은 문부 일제침략군의 《명복》과 침략 일본의 《제다짝》을 신으라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대신 다나까에게 내린 칙령 전쟁의 《성과》를 비는 《묵 고 강박하였다. 시기 조선에서는 교육의 중요 에서 조선에서의 식민지노예 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 일제는 경찰을 비롯한 폭 성을 인식한 진보적인 사람 교육의 강화와 《건전한 국민 박하였다. 들에 의하여 민족교육운동이 양성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 등 이른바 《황국신민화》 활질서에 응하지 않는 조선 녀성들에게 달려들어 가위로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벌 를 다그칠데 대한 지시를 하 사람들에게는 《부정선인》이 옷을 째고 벗기는 추악한 행

들이 일본의 교육제도처럼 여기에서는 우리 말과 글, 개편되고 학생들에게 《일본 의식을 없애기 위해 학교들에 실현하기 위해 악독하게 책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정신》을 배양시키기 위한 주 서 일체 조선의 지리와 력사 동한 일제야말로 우리 민족 고 《민주화운동정신》을 이 어받는다고 새롭게 규정한 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성 몸뚱이에서 나는 독재의 피 민속풍습과 일반상식도 가 입교육이 더욱 강화되였다. 에 대한 교육도 엄금하였다. 의 철천지원쑤, 인류문명의 이나가겠다는 표현도 집어넣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 장돕기, 경제민주화구현 등 비린내와 부정부패의 악취는

르쳐주었으며 애국주의교양 학생들은 수업전에 왜왕의 일제는 조선의 애국적인사 흉악한 파괴자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 일제는 1908년 이른바 《사 을 강요당하였다.

한편 매일 정오때에는 침략 발하라, 옷색갈도 일본식으 전쟁마당에서 개죽음을 당한 로 검은색을 택하라, 신발도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 마저고리를 입고다니는 조선 라는 황당한 딱지를 붙여 감 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교육칙어》를 따라외워야 들이 쓴 《초등본국력사지 본사기자 주광일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했고 일본법에 순종하고 왜 리》, 《중등본국력사지리》 립학교들과 인민들속에서 널 또한 매일 아침마다 동쪽 리 애독되고있던 책들을 모 을 향해 《궁성요배》를 할것 조리 압수하여 불태워버렸으 며 일체 수업시간에 조선의

을 일본인화한다는것이다. 에서 사립학교수는 대폭 줄 이와 함께 일제는 《아마 한력사》를 비롯한 력사책들 ┃들이 사람들을 아 데라스오미까미》라는 저들 과 《을지문덕전》 등 조선의

머리형태도 일본식으로 단

압력량까지 동원하여 조선치 조선사람들의 민족의식을

합당》은 보수정당사상 처음 투쟁력사에 대해 렬거하

《새로운 정당》의 상표가 붙 노릇이 아닐수 없다.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수》과 《3 1독립 더러운 몸통이 가입워지라 자한 평화통일》을 떠들며 《흡수통 을 저들의 면사포에 하나의 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들이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 드러내놓은데서 다시금 명백

보수의 정체성고수를 내들고 가겠다는것은 자기 조상들이 달라질래야 달라질수가 없다. 번에 개정하는 《정강정책》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 걸어온 범죄의 행로를 부정하 이런 《미래통합당》이 《정 의 《정당성》을 떠들면서 저 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 는것으로서 전혀 동에도 닿 통보수야당》의 체면마저 다 들의 재집권야망을 로골적으 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통 지 않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줴버리고 해괴한 광대극까지 로 드러내놓고있다. 으로 정강정책초안에 4.19인 책》개정놀음이 몸통은 그대 들의 중오와 배격을 받아 얼마 여 수박이 되는것이 아니다. 민봉기, 부마항쟁, 5.18광주 로인데 옷만 바꾸어입는 기 나 바빠맞아하고있는가를 잘 인민봉기, 6월인민항쟁을 비 만책동이라는것은 삼척동자 말해주는것이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민족 말살하고 《황국신민화》를 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 도 알 일이다.

장식품처럼 달아놓은것이다. 다. 그런즉 《미래통합당》이 된다고 《미래통합당》의 사대 히 드러나고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나 매국적이며 파쑈적인 체질은

《미래통합당》의 《정강정 벌러놓은것을 보면 남조선인민

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시각에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어울리지 않는 타령을 《정 도저히 감출수가 없다. 【3.1독립운동정신도 이어받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 강정책》 초안에 쪼아박은것도 본사기자 안 권 일

고 민생을 도탄에 잠근 리명

면사포나 쓴다고 변《정강정책》초 안에 《자유민주주

호박에 푸른 줄을 친다고 하

《미래통합당》이 울긋불 굿한 치레거리로 장식한 면사 《미래통합당》이 미래성 포를 뒤집어쓰고 민심의 눈 《3.1독립운동정신》을 이 장동력과 일자리창출, 소상 길을 끌어보려 하지만 썩은

#### **틯**00 沙里会哥

### 

공화국에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유명한 느티나무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력사 유적의 하나로 해외동포들에 게 널리 알려진 석왕사의 느 티나무도 있다.

석왕사에는 600여년전부 터 자란 느티나무를 비롯하 골짜기를 따라 느티나무 들이 하늘을 숲을 이루고있다.

개성시에 있는 력사유적 고려성균관앞마당에서 자 라는 느티나무도 1 000여 년이나 자란 국내에서 가 장 큰 느티나무들중의 나이다.

느티나무는 고산지대와 벌방지대, 마을과 길가를 비롯하여 어디서나 잘 자 라는 생활력이 강한 나무 이다.

또한 굳고 무늬가 고와 건 축, 가구, 배, 조각의 재료 로 많이 쓰이고있다.

느티나무는 일정한 높이까 지 미끈하게 자라다가 가지 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닭알모양을 이루는데 가지와

잎이 많고 그 모양이 아름 다와 정자나무로도 불리워 왔다.

퇴약볕이 내리쪼이는 삼복 철인 요즘 시원한 그늘을 지 어주는 느티나무들이 평양의 거리들에 우거져 수려한 풍

치를 한껏 돋구고있다. 특히 평양역앞에서부터 창광음식점거리의 량옆으로

수종이 좋은 느티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은 볼수 록 이채롭다.

공화국에서는 이처럼 관상 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 도 쓸모가 큰 느티나무를 많 이 심어 거리와 마을, 산천 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고 있다.

닭고기는 찢고 돼지고기는

파와 마늘은 다지며 고기

로 맛을 돋구어 국수

고기에 소금, 간장,

파, 마늘을 두고 무

치며 김치무우와 오이

는 버들잎모양으로 썰

어서 소금, 간장, 깨,

파. 마늘을 두고 무

파, 마늘, 고추가

루, 깨, 소금, 참기

름, 간장을 섞고 국수

물을 약간 부어 양념

농마에 백반물과 끓

는물을 두고 익반죽하

여 눌러 삶아서 국수

사리를 만든 후 양념

장에 비벼 그릇에 담

고 고기, 오이, 김치

본사기자

이르는 말.

르는 말.

꾸미를 얹은 후 실닭알, 실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것

조정과 군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것이 군인의 본분이

며 애국충정의 길이라고 믿고

있던 그로서는 자못 심각한

이 느낌은 《을사5조약》

느낌이 아닐수 없었다.

장을 만든다.

친다.

국물은 간장, 소금, 맛내기

국물을 만든다.

얇게 썬다.

본사기자 리철민





하나음악정보쎈 터에서 특색있는 정보기술제 품들을 개발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음악정보자료 를 봉사하고있다.

방대한 음악정보자료를 수 집, 분류, 구축한데 기초하 여 수많은 음악다매체편집물 들을 제작하고있는 하나음악 정보쎈터에서는 최근에만도 풍부성과 편리성, 다기능성

이 보장된 다 양한 음악프로 그람들을 만들 어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 에 적극 이바지

하였다. 하나음악정보 쎈터에서 제작 한 화면반주음 악프로그람들 은 장소에 구 애됨이 없이 손 전화기와 판형 콤퓨터를 통해

서도 리용할수 있고 또 예술 분야의 다양한 자료들도 열 람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사 용자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이곳에서는 전 문가적인 방조가 없이도 자 체로 음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어린이들의 음악교 육과 지능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제

품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류다른 관심을 모으고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지혜 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하나 력에 의해 음악정보봉사활동 은 더욱 다양하고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세면기나 수도꼭지를 깨

끗하게 닦는다. 소금과 식초를 섞 어 닦으면 말끔히

지워지면서 깨끗해

진다. 앤다.

전날 저녁에 식초물에 쌀 을 씻어 놓는다. 아침에 이

용하면 음식물이 늘 어붙기 쉽다. 사용하 울 떨어뜨려 사용하면 음식

쌀을 한번 더 미지근한 물에 -묵은 쌀의 냄새를 없 헹군 다음 밥을 지으면 묵은 쌀냄새가 사라진다.

-남비에 뿌려준다. 새로 산 남비를 그대로 사

기 전에 식초를 한방 물이 타는것을 막을수 있다. 본사기자

농마국수는 함경도지방의 **특산음식이다** 

그중 함흥농마국수가 제일 유명하였는데 국수국물로 소 고기국물을 썼다. 감자농마국수의 꾸미

지고기, 닭고기를 썼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고 열처리에 의한 손 실이 적으므로 몸에 정 신적긴장이 쌓이지 않

로는 흔히 소고기, 돼

게 한다. 또한 감자에는 면역 력을 키우며 미생물이 나 암세포를 죽이는 작 용을 하는 펙틴, 염분 에 의한 고혈압을 억제 하는 광물질도 많다.

및 십이지장궤 결막염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좋은 작 용을 하는 장수식품인 농마국수는 약리적가치

가 크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추로 고명하고 국수국물을

붓는다. 고기는 삶아서 건진 다음

♦ 가물끝은 있어도 장마끝은 없다. 가물은 아무리 심하게 들어도 농사가 안되는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만 장마가 담 져서 큰물이 난 뒤에는 집과 가산까지 물에 다 씻겨내려가므로 아무것도 거둘 1 것이 없다는 뜻으로 장마피해가 더 큼

**图** 

鼠

을 비겨 이르던 말. ♦ 들은 말 들은데 버리고 본 말 본데 버리라. 

남에게서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

인가.

2019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3)

### 단의료기술을 확립한

평양산원 실장 박사 홍경 순은 불임치료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확립하기 위한 연 구에서 결정적역할을 수행하

이 첨단의료기술은 여러가 지 불임치료에서 핵심기술이 라고 말할수 있다.

첨단의료기술공정을 확립 하는 연구가 생소하였지만 그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을 뚫고 기어이 자체의 힘으 로 확립하겠다는 높은 목표 를 내세우고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 나날에 연구집단과 함 께 매 공정을 과학화하고 그 기술적지표들을 높은 수준으 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치의 드 틲도 몰랐던 그는 연구과정 에 시약의 부족을 느끼게 되

하여 해결할 방도를 찾기 위 해 탐구를 끊임없이 심화시

하여 지난 시기 수입에 의 존하던 값비싼 시약들과 배 양액들을 자체로 개발함으로 써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진 행할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연구사들의 실력을 한계단 질이라고 할수 있다.



힘을 넣어 모두가 학위소유 자의 영예를 지니도록 이끌 어주었으며 그들의 개성적특

에 대한 분담과 총화를 구체 적으로 짜고들어 창조적열의 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일단 하자고 결심한 일에서 는 무조건 끝장을 보아야 한

몇해전에 박사가 된 그는 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며 기

앞으로의 그의 목표는 보 다 높은 첨단치료방법들을 개척하는것이며 보건실천에 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성을 살리면서 연구과제수행

그의 심장은 언제나 알찬 의학과학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 시키는데 이바지해갈 맹세로 고동치고있다.

본사기자

#### 총명하게 만드

지금까지 머리가 좋고나쁨 은 선천적인것으로 간주되여 왔다.

즉 지식의 량을 늘인다고 해도 두뇌 그자체는 총명해 지지 않는것으로 간주되고있 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데 의 하면 뇌도 운동하는데 따 라 활성화된다는것이 밝혀 졌다.

여기에서 주목을 끌고있 는것이 록음테프를 고속으 로 재생시켜 듣는것만으로 도 두뇌를 총명하게 만든다 는 속청이라는 잠재뇌력개발 체계이다.

이것이 이미 실용화되여 실 업계뿐아니라 의료, 교육 등 넓은 분야에서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그 효과에 대해 말한다면 하루에 30분간의 속청을 수 개월간 계속하면 우선 누구 나가 청취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감할수 있다.

나아가 《보기》, 《읽기》 능력도 동시에 제고된다.

즉 뇌의 정보처리능력이 훨씬 좋아진다.

속청은 실로 두뇌의 회전 속도를 다련하는데 가장 적 합한 뇌력개발법인것이다.

사람이 가지고있는 5가지 감각가운데서도 청각에 대한 자극은 특히 뇌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감각기억이 광범하 게 산포되여있고 뇌내조직망 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억과 런결되여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 부채와 노래《부채다령》

예로부터 무더운 삼복철 에 부채가 사람들에게 없 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되 여왔다.

우리 민족사에 부채는 깊 은 력사를 가지고있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안악 제3호무덤벽화에 털부채가 그려져있는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부채가 널리 사용되 여왔음을 알수 있다.

부채는 여러 종류가 있는 데 크게는 둥글부채와 접이 부채로 구분한다.

둥글부채는 달모양으로 둥

그렇게 만든 부채인데 쓰기

잊어버리고 무엇을 본 일이 있으

면 본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라는 뜻 으로 들은 말이나 본것을 함부로 여 기저기 옮기지 말라는것을 경계하여

❖ 정 각각, 흉 각각. 정은 정대로 있고 흉은 흉대로 있는 것이여서 아무리 가깝고 정이 들었어 도 흉은 흉대로 눈에 뜨이게 됨을 이

편리하게 만든것이다. 접이부채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원재료의 선택과 만드 는 공정도 복잡하다.

부채살은 흔히 대나무를 쓰 는데 회나무를 쓰기도 한다. 회나무는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빛갈이 백옥처럼 하

채를 만드는 원재료로 리용 된다. 그리고 종이는 화삼지 또 는 화선지라고 하는 이겹지

얗고 정갈하기때문에 고급부

였는데 명주처럼 다듬이질을 해서 부채살에 붙인다. 접이부채를 만드는것은 재

능있는 제작공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의 배합이 맞아 야 한다. 그림을 그린 부채를 화선

이라고 하였는데 화공의 취 미와 능력에 따라 그림은 각 이하였다.

부채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림은 금강산, 매화, 국화, 소나무, 청죽, 버드나무, 학, 사슴, 달밤의 기러기 등과

산수풍경들이였다.

그림에 뜻이 깊고 간결한 글을 써넣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부채타

령》과 같은 노래도 지어불

여보시인 번념네들 이내 부채를 골라보소 요내 부채를 골라보소 폈다 접어 접이부채

동해동천에 돋는 해를 부채살에 옮겼으니 해살부채가 여기 있소 팔월공산에 달이 뗬다

인민들속에서 창작되여 전 리하게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 (1)

민, 그림 리 성 일

정미년, 1907년 7월 그믐 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께의 어느날 밤이였다. 왜놈들의 강요에 의한 《정 미7조약》의 날조로 한양장안 한 편지는 자자구구가 가슴저 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 미는 소리로 가득찬것이였다. 며칠째는 저으기 평온한 나 날이 흘러가는상싶었다.

그러나 어데라 없이 긴장 한 저기압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삼복철의 지겨운 밤, 달빛을

이가 종로거리를 걷고있었다. 그는 시위대(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왕의 호위를 위하여 조직된 군대) 1대대에 군적 을 둔 군관 권기홍이였다.

고개를 지수굿하고 걸어가 는 그의 입에서는 가끔 탄식 같은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군복앞섶은 풀어헤쳐졌고 처져내린 혁띠에 매달린 칼

집은 땅에 끌렸다. 특별히 어디를 정하고 걷는 걸음이 아니였다. 괴롭고 울 적한 기분을 가실길 없어 방 향없이 내친 걸음이였다. 방금전에 그는 고향에서 아

국운이 쇠진해지니 가운마 저 기울어진다고 쓰기 시작

왜놈상품이 들이밀리는 바 람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다 세금은 과중하고 빚독촉 은 성화같아 온 식솔이 운 명을 걸고있던 가게방을 끝 내 닫아버렸다는것, 호구지 등진 검정군복차림의 한 사나 책을 잃어버린 가족이 눈물 로 날을 보내는데 집안의 가 궁한 정상을 보다못해 녀동 생이 몇푼돈에 팔려 이민으 로 서양나라에 끌려갔다는 것, 이제는 온 식솔이 기홍 이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였 다는것, 그래 회답편지를 받

> 사연이였다. 이 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 이 아닐수 없었다. 몇푼 안되 는 군록으론 내 혼자의 씀씀 이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온 가솔을 어떻게 먹여살리랴… 자기 어깨에 실리는 너무도 큰 부담에 권기홍은 가슴이

으면 도성으로 떠나겠다는

답답해났다.

《나리-》 누군가 찾는 소리에 그는 번뇌에서 깨여났다.

《인력거를 탑쇼.》 늙수그레한 인력거군이 그 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권기홍은 걸음을 내짚었다.

《나리, 적선하는셈치구 타줍쇼. 눈이 까만 새끼들이 벌써 며칠째 굶었소이다.》 인력거군은 가뜩이나 울적 하던 권기홍의 심사를 더 궂 혀주었다.

약한자의 우는소리… 어쩌 면 이렇게 지지리 못난 인생 들뿐인가. 《령감, 어데 가서 농사나

짓지 왜 한양바닥에서 빈둥 거리오?》 역중어린 그의 말에 인력 거군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랬으면 여북 좋겠사와 유. 룡산에 몇마지기나마 땅 이 있던걸 을사년에 왜군에게 뺏기구 이 노릇을 하지유.》 《룡산에요?》 하고 되물은 권기홍은 걸음을 주춤거렸다. 그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룡산, 너무도 기억이 생생 보게 되였다. 그리고 자기 처 한 곳이였다. 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였다. 이태전 《을사5조약》이 날 자기는 무엇때문에 누구를

조되던 해인 1905년 8월초 였다. 왜군은 한양의 룡산일대로

부터 한강류역까지를 군용지 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토 지 3천여결을 략탈하였을뿐만 아니라 천여호의 살림집을 헐 고 백수십개의 무덤을 마구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졸지에 생계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된 룡산과 한강류역 의 수천명 농민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엿새동 안이나 왜놈헌병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렸다. 왜놈들의 강 박에 시위대도 그들의 진압 에 내몰리였다. 권기홍이 앉 아버티는 농민들을 흩어지라 고 총대를 내휘두를 때였다. 갓을 쓴 수염 허연 체소 한 늙은이가 앙상한 손으로 그의 목깃을 꽉 움켜잡았다.

《이놈, 개도 제 집을 지 켜 도적을 무는데 너희놈들 은 저 강도같은 왜놈들과 한 짝이 되여 동족을 죽여! 이,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수염을 우들우들 떨던 로

도 눈에 밟혔다.

았다.

을 반대하여 나라의 곳곳에 서 일어난 의병들의 투쟁소식 인의 서리발찬 기상이 지금 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폭도 라고 하면서 잡아온 의병들 아마 그때부터였던것 을 눈앞에서 볼 때마다 더욱 깊어갔다.

대역부도죄인이라는 어마어 마한 죄명으로 목을 잘리우 는 최후순간까지 왜적을 치 고 매국노를 쳐야 한다던 그 들의 절규가 귀가에서 떨어지

지 않았다.

하면서도 저주로운 검정군 복을 벗어던질 용단은 내리 지 못하였다.

어쨌든 나라를 지킬 군대 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번 민과 울분으로 모대길 때마



다 그는 쓰린 가슴을 달래듯 군모의 모표를 쓸어만졌다. 어디선가 애끓는 창가소리 가 울려왔다. 우국지사들의 영탄의 흐느낌소리가 시국풍 조로 되여버린 때였다.

구슬픈 창가소리에 자못 심란해진 그는 영춘각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에익, 독한 술로 이 울 화통을 삭이자. 나뽈레옹은 술이란 약자의 객기를 위해 서만 소용닿는 물건이라 했 다지만 술 아니면 못 견디 겠구나.》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영 춘각으로 발길을 돌리던 권 기홍은 그때까지 자기곁에서 걷고있는 인력거군에게 지폐 몇장을 꺼내주었다.

《아니?…》 《내가 타고온셈치구 받아 두인》

《고마와유, 나리, 밖에서

기다리겠어유.》 권기홍은 료리집에 들어 가서 한고향태생으로 자별 한 사이인 최향화를 찾았다. 향화는 어느때건 그의 기분 을 리해하고 위로해줄줄 아

는 녀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지 시무룩한 기색이였다. 수심 어린 두눈을 차붓이 내리뜬 채 애들장난감만 만지작거리 였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삼촌네가 해삼위로 떠났 어요. 종매(손아래 4촌누이) 들을 줄려고 산 이 장난감은 소용없이 됐어요.》

향화의 두눈은 흐려졌다.

해오는 노래 《부채타령》은 부채에 대한 상식을 주고있 으며 소나무와 매화, 대나무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흥겹게 노래하고있다. 오랜 력사를 이어오는 부 채는 오늘날에도 생활에 편

《왜 세상이 이렇게 될가 요? 왜 우린 참아야만 할가

> 눈이 동그란 오또기는 호돌 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이것 이름이 뭔지 아셔 요?》

요? 우린 이 장난감보담두

향화는 만지작거리던 오또 기를 자빠뜨리였다. 그러나

못해요?》

《오토기지 무어야.》 《아니, 점포아바이가 그러 는데 오독립이라지요. 나 오 자. 홀로 독자. 설 립자… 내 가 독립하겠다고 오톡오톡 일

어서는게 얼마나 장해요.》

이럴즈유 마당에서 떠들썩 한 소리가 나더니 미닫이밖 에서 송구스러워하는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 찾는 소리가 들렀다.

《나리, 나리…》 분명 늙은 인력거군의 목 소리같아 권기홍은 문을 열 고 마루에 나섰다.

《나리, 저 왜병정이 자 꾸 타구가자고 못살게 굽니 다요. 나리를 모실거라구 그 만큼…》

인력거군을 밀어제끼며 앙 바름한 키에 어깨가 되바라 진 왜놈 오장놈이 기홍의 앞 에 다가섰다. 역한 술내가 풍겼다.

《구루마 당신이나 타고 왔는가?》